

經濟(特用·商品化)作物의 經濟的 分析

——小農經濟理論의 새로운 展開를 위하여——

權 光 植*

次 例

- | | |
|---------------------|-----------------------|
| I. 問題의 提起 | Ⅲ. 經濟作物의 經濟分析 |
| 1. 論理의 假說의 接近 | Ⅳ. 經濟分析值의 論理的 判斷 |
| 2. 理論展開의 素材 | V. 小農의 經濟行爲에 對한 理論的 定 |
| Ⅱ. 經濟作物 栽培의 資源利用 實態 | 理—結言 |

I. 問題의 提起

1. 論理의 假說의 接近

過剩人口經濟下의 小農을 理論的으로 定理하고 政策的으로 적절히 다루는 問題는 前世紀의 末葉부터 今世紀의 初에 이르기까지 東歐를 中心으로 집중된 論議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며 이 過程에서 소위 「Agrarianism」의 出現을 보게 되었지만 이 時期에서의 「Agrarian」들은 小作經濟에 對한 充分한 理論展開에 成功을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兩次大戰以後 經濟發展이 落後된 諸國은 農地改革의 실시를 통하여 자유로운 小農을 창설하여 왔다. 그러나 農地改革의 平等主義의 側面만이 강조되고 露出되어 왔을뿐 農地改革을 통하여 創設된 小農의 經濟行爲에 對한 理論的 把握이나 그의 後進國經濟發展에 對한 寄與의 올바른 評價는 상대적으로 輕視되어 왔다. 이러한 理論的 空白을 메우기 위한 論議는 人口過剩國의 經濟發展을 위해 必要한 要請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다구나 從來의 單純한 食糧自給的 農業이 이제 「Agribusiness」로서 그 產業的 領域이 擴大되어 감에 따라 農民들은 지금까지의 主穀偏重의 生産趣向에서 經濟作物 栽培로 關心을 기울이고 있으며, 國內 農產物價格과 需要 또한 經濟作物이 有利한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工業化 段階에 있는 韓國에 있어서 第2次 農業革命의 背景¹⁾은 西歐와 달리 하고 있으며, 現實的으로 耕地面積이 협소한 韓國과 같은 小農에 있어서의 經濟行爲는 필연적으로 集約度가 높은 複合경영내용으로 集中 表現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韓國

* 朝鮮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1) ① 第1次 農業革命: 資本主義가 農業을 掌握하는 段階로서 交換經濟의 農村侵透와 肥料을 主軸으로 하는 土地生産力의 劇期的인 增加가 나타난다.

② 第2次 農業革命: 農村人口의 絶對的 減少를 背景으로 하는 勞動集約的인 農業機械化 段階로서 勞動生産力의 本格的인 向上이 始作됨.

小農의 經濟行爲의 理論의 定理을 위해서는 傳統의 小農理論의 反省과 아울러 小農經濟理論의 새로운 展開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협소한 耕地面積에 복합경영을 내용으로하는 韓國小農經濟의 論理的 解明에는 세가지 假說이 前提되지 않을 수 없다.

假說 1. 韓國經濟의 現實의 價格構造 아래서 農家所得을 提高시킬 수 있는 것은 중래의 곡물생산 단순형태로부터 곡물+經濟作物(作物 多樣化)이라는 作付體系 改善이다.

假說 2. 商工部 주도의 高度成長 속에서²⁾ 農産 生産力 저하에 대한 대책은 小農의 해체가 아니라 小農의 農業 機械化로 接近된다.

假說 3. 韓國農業의 現實의인 經濟行爲는 小農經濟理論의 새로운 展開에서 파악 定理된다.

以上과 같은 假說 위에서 經濟作物, 特히 全南 農村 일대에서 栽培하고 있는 經濟作物(스테비아, 인초, 논팔기)栽培 農家の 營農 實態와 그 經濟性을 分析하고, 그것의 經濟行爲 內容을 中心으로 小農 問題를 再認識하며 또 정리하는 理論의 接近은 韓國의 小農問題 解明에 있어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리하여 본 論文은 叙上한 바와같은 研究上的 意義에 立脚해서 經濟作物의 經濟性을 分析함으로써 農家所得 增大와 農家經營의 意思 決定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小農經濟社會에 있어서의 小農問題의 再認識에 따른 小農經濟理論의 새로운 展開를 理論적으로 定理해 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나 본 研究가 地理의 時間的 統計 數量的 制限을 받고 있는 結果物이기 때문에 理論의 및 現實의 制限性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理論展開의 素材

資本主義 經濟發展 過程에서 小農은 비록 過渡期的 現存으로 規定되어 經濟理論上的 間地에 放置된 채, 그 零細性에도 불구하고, 現實적으로 小農들은 스스로 農家 所得을 높이고 農業 機械化의 可能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小農들의 現實의인 經濟行爲에 對한 論理的 해명을 위하여 먼저 전남 4개 市郡에서 76년 4월부터 78년 3월까지 스테비아 栽培農家 10戶, 인초와 논팔기 재배 농가 각각 40戶, 計 90戶를 有意標本으로 選定한 다음 別紙 설문지를 가지고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聽取 調查하였다. 그리고 國內外의 小農 問題의 研究 文獻을 가능한 널리 참고하여 經濟作物 栽培의 經濟性과 現實의인 小農들의 經濟行爲를 理論적으로 定理하려하고 努力하였다.

II. 經濟作物 栽培의 資源 利用 實態

1. 土 地

經濟作物 栽培 農家の 戶當 耕地 面積은 <表 1>에서와 같이 스테비아 栽培 農家が 約 19.8단보 인초와 논팔기가 각각 11.1단보, 8.2단보였는데 그중 農家戶當 經濟作物 栽培面積은 스테비아 栽培 面積이 14.2단보 인초와 논팔기가 각각 2.7단보, 2.1단보였다. 그리고 각 농가의 全耕地 面積에 대하여 經濟作物 栽培 面積 比率는 스테비아 71.7%, 인초 24.3%, 논팔기가 25.6%였다. 또한 각 農家の 土地 利用率은 스테비아, 인초, 논팔기 栽

2) 韓國經濟의 高度成長은 産業化 都市化를 촉진하여 상대적으로 農業에 있어서 耕地는 과거 15년(66~77) 동안에 全國土의 23.3%에서 22.7%로 減少하고 120만명 이상의 農業勞動力이 離農한 것으로서 高度成長은 一面 農業生産力 低下의 pushing factor를 同伴하고 있다.

〈表-1〉 農家の 土地利用률比較(단보당)

(단위 : 단보)

구 분	정지면적 (A)	경제작물재 배면적(B)	경제작물재 배비율(%) (B/A)	호당총토지 이용율(%)	비 고
스 테 비 아 재 배 농 가	19.8	14.2	71.7	177.89	
인 재 배 농 가	11.1	2.7	24.3	175.28	
논 재 배 농 가	8.2	2.1	25.6	176.94	
미 재 배 농 가	12.3	12.0			신물중일체
맥 재 배 농 가	12.4	6.7			
조사대상지역	10.7			172.3	평 균
전 남 지 역	10.2			170	최근 3년
전 국	0.1			150	최근 5년

資料 : 農林統計年報 1977; 實態調査 1976—78.2

(비고) ① 조사지역의 모든 작물재배가 포함된 것임.

② 미곡·맥류는 기타 田作物과 연관된 作付임.

培 農家が 各各 177.8%, 175.3%, 176.9%로서 經濟作物, 栽培 農家の 土地 利用率은 상당히 높아 經濟作物, 栽培 農家は 결국 土地를 高度로 利用하면서 企業農에서와 같이 危險分散原理에 따라 經營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테비아는 하천부지, 인초 논밭기는 米作 休耕期에 麥作 등 他作物의 栽培가 不利한 條件의 土地를 利用함으로써 實質的으로 土地 利用을 高度化하고 있다.

2. 勞動力

經濟作物 栽培 農家に 있어서 經濟作物 栽培 面積의 단보당 總 投入勞動 時間은 〈表 2〉

〈表-2〉 단보당 勞動力 投入 (A+B)시간

단위 : 시간 및 원

구 분	스 테 비 아									인								
	농가노동력			고용노동력			계			농가노동력			고용노동력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온상작업(제) (A)	61	34	95	30	22	52	91	56	147	18	8	26	8	0	8			
분포작업(제) (B)	114	107	221	18	90	108	142	204	346	240	32	272	96	88	184			
(A)+(B)	175	141	316	48	112	160	233	253	486	258	40	298	104	88	192			
노동력비 (勞動力費)	三二八 一〇〇	二四二 九〇	五七一 一〇〇	九〇〇 〇〇	一四〇 〇〇	二二三 〇〇	四一八 一〇	三八二 九〇	八〇一 〇〇	四八〇 〇〇	一五二 〇〇	六三二 〇〇	一五六 〇〇	一七二 〇〇	三三八 〇〇			

	초			논 딸 기								
	계			농가노동력			고용노동력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6	8	34	48	40	88				48	40	88
	336	120	456	208	128	336	32	248	280	240	356	616
	362	128	490	256	168	424	32	248	280	288	416	704
	六三六〇〇	三二四〇〇	九六〇〇〇	四八〇〇〇	二五二〇〇	七三二〇〇	六〇〇〇〇	二七二〇〇	四三二〇〇	五四〇〇〇	六二四〇〇	二六四〇〇

資料；實態調査 1976.4—78.2

(비고) 성인 노동력을 기준으로 계산

와 같이 스테비아에 486時間, 인초에 490時間, 논딸기에 704時間이었으며 農家 戶當 總投入勞動 時間에 대한 雇用勞動의 比率이 스테비아는 35%, 인초가 44.2%, 논딸기가 39.7%였다. 이는 同一 地域에서 통일벼 제종의 단보당 總投入勞動 時間이 192時間 맥류가 176時間임에 비하여 經濟作物 農家は 勞動 集約度가 높았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總投入勞動 時間에 대한 雇用勞動의 比率은 미백의 54.2%와 56.5% 보다 아주 낮았던 것이다. <表 3-3> 그리고 <表 3>에서와 같이 經濟作物의 月別 農業 勞動力 投下 時間을 보면 4月 5月, 9月 10월에 비교적 많이 投下되었으나 그것은 年間 投下 勞動 平均値 8.3% 보다 겨우 2% 정도 増加하였으며 <表 3-1> <表 3-2>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農家別 勞動力 投下 時間의 peak time을 빗겨남으로서 經濟作物은 농번기의 勞動力 부족을 악화시키지 않고 年中 勞動 配分을 示顯시켰던 것이다.

<表-3> 단보당 經濟作物의 月別 農業 勞動力 投下 時間(日數)

단위 : 일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간 (일수)	9	13	16	23	33	17	13	20	19	25	12	10
구성비 (%)	4.3	6.2	7.6	11.0	15.7	8.0	6.2	9.5	9.0	12.0	5.7	4.8

資料；實態調査 1976.4—78.2

(비고) 온상작업과 분포작업을 합계한 하루 8시간을 기준한 日數임.

<表 3-1> 農家 月別 農業 勞動 投下 時間 分布

단위 : 시간

月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간	60.3	30.26	124.39	144.57	174.50	385.68	297.6	194.12	145.17	606.61	231.47	86.10
구성비 (%)	2.8	1.4	5.7	6.6	8.0	17.7	13.8	8.7	6.7	14.0	10.6	3.9

資料；農家經濟 및 生産費調査結果報告書, 農水産部 1976.

〈表 3-2〉 農家 月別 戶當 遊休 勞動 日數

단위 : 일

구 분	4	5	6	7	8	9
가족노동일수	55.0	61.2	72.3	65.6	61.7	54.8
실 업 일 수	18.7	12.5	1.4	8.1	12.0	18.9
실업비율(%)	25.4	17.0	1.9	11.0	16.3	25.7

구 분	10	11	12	13	2	3	計
가족노동일수	67.7	52.0	47.2	39.8	38.2	47.0	662.5
실 업 일 수	6.0	21.7	26.5	33.9	35.5	26.7	221.9
실업비율(%)	8.1	29.5	36.0	46.0	48.2	36.2	25.1

資料 ; 農村振興廳, 1976.

〈表 3-3〉 단보당 농가소득 및 순수익

구 분	작 물	스테비아	인 초	논 딸 기	미 곡	백 류
생 산 량(kg)		300	1,050	1,125	729	450
조 수 입(원)		420,000	280,000	510,000	200,775	79,900
소 득(원)		301,477	195,729	248,144	159,717	60,295
부 가 가 치(원)		324,477	228,529	291,344	167,067	66,595
소 득 율(%)		72	69	49	79.6	75
단 보 당 노동력(일)		60	61	88	24	23
단 보 당 순수익(원)		81,100	76,000	90,200	23,700	20,400
단 보 당 노동력(일)		39	34	3	11	10
고 용 노동일		21	27	35	13	13
고용노동비율(%)		35	44.2	39.7	54.2	56.5

資料 ; 實態調査 1976.4—78.2

그리고 1日當 勞動所得(勞動收益/勞動日數)은 스테비아 재배에서 1351.7원, 인초가 1391.3원, 논딸기가 1025.0원이며 同一 地域에 있어서 主穀인 米穀은 987.5원, 보리가 886.9원으로 分析되어 勞動 報酬 또한 經濟作物이 월등히 높았다(다만 作物의 價格變動을 前提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價格하락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3. 資 本

대체로 우리나라 農業 生産에 있어서는 資本을 效率의으로 利用할 수 있는 限界가 매우 制限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資本生産性은 土地生産性이나 勞動生産性에 비하여 年次的으로 거의 漸増되지 못하였는데³⁾ 經濟作物 栽培 農家に 있어서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3)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농수산부, 1977. p. 39

〈表-4〉 단보당 作物 수익성 비교

단위 : 원

작물별	구 분	조 수 입	경 영 비	총 생산비	순 수 익	자본생산성
미	곡	200,775	41,058	132,472	68,303	1.46
맥	류	79,900	19,605	97,313	-17,413	0.78
스	테 비 아	420,000	118,523	192,989	227,011	2.67
인	초	280,000	79,771	197,552	82,448	1.97
논	밭 기	510,000	200,856	332,553	177,448	1.43

資料 ; 實態調査 1976.4—78.2

(비고) 여기서 순수익은 조수입 - 총산비 계산에서 산출근거

그리고 〈表 4〉에서와 같이 資本生産性은 스테비아가 2.67원, 인초가 1.87원, 논밭기가 1.43원, 미곡이 1.46원 맥류가 0.78원으로 나타났다.

農業資本 利潤率⁴⁾도 〈表 5〉 스테비아 재배 농가에 있어서 농업자본 이윤율이 216.47, 인초의 그것이 134.93, 논밭기 143.02, 미맥이 각각 131.80, 60.06으로 나타나서 經濟作物栽培가 小農의 經濟向上에 큰 보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5〉 作物의 資本利用率 比較

단위 : 원

구 분	스테비아	인 초	논 밭 기	미 곡	대 맥
농 업 소 득	301,477	200,229	309,144	159,717	60,295
농 업 자본 소 득	244,377	137,029	235,944	143,367	46,195
농 업 자 본 이 율 (%)	216.47	134.02	143.02	131.8	60.06

資料 ; 實態調査 1976.4—78.2

(비고) 농업자본이윤율 = $\frac{\text{농업자본소득}}{(\text{생산비} - \text{노동비})} \times 100$ 으로 共通基準에 의거 산출

Ⅲ. 經濟作物의 經濟分析

1. 粗收益

農業經營에 있어서 粗收益은 一年間의 經營成果로서 얻어진 生産物 및 副産物의 總價額으로 볼 때 粗收益은 〈表 4〉에서와 같이 스테비아가 420,000원, 인초가 280,000원, 논밭기가 510,000원이고 같은 地域의 미곡이 200,775원, 맥류가 79,900원으로서 스테비아의 總收益은 미곡 粗收益보다 2배가 넘고 맥류의 그것보다는 5.4배나 되며 經濟作物 중에서 粗收益이 가장 낮은 인초도 미곡과 맥류보다 높았다.

4) 小農經營에 있어서 農業資本計算의 어려움이 있지만 農業所得은 이른바 混合所得이어서 그 內容은 自家勞動에 대한 報酬, 自土에 대한 報酬 및 自己資本에 대한 報酬가 分離되지 않은 채 混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農業所得의 內容을 明確히 把握하기 위해, 農業資本利潤率을 Pr , 農業資本所得을 I , 農業資本額을 K , 생산비를 P , 노동총비용을 L 이라 할 때 $Pr = \frac{I}{K(P-L)} \times 100$ 에 의하여 산출했음.

2. 生産費

小農經濟에 있어서의 生産費는 그것이 많은 假定과 評價 위에서 行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算出에 많은 困難性이 있다. 여하튼 生産費도 農產品으로서의 農產物 單位 數量을 生産하는데 요하는 生産要素, 用役의 費用 合計額이니 經濟學上으로는 언제나 農產物 價格에 對應하는 概念으로서 生産者가 諸生産 要素를 所有하였거나 또 所有하지 않았거나를 불문하고 여기서는 生産要素 用役에 대한 費用은 全部 計上했다.

〈表 6〉에서와 같이 經濟作物 栽培 農家가 作物 栽培에 投下한 平均 生産費는 스테비아가 192,989원, 인초가 197,552원, 논밭기가 332,553원이었다. 生産費目 中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스테비아의 경우 종자대와 농가 노력비(生産費 對比 29.6%)였

〈表-6〉 단보당 作物別 收益性 分析

단위 : 원

내 용			작 물	스테비아	인 초	논밭기	미 곡	맥 류
생 영 산 비	경 영 비	중 간	종 자	36,000	10,500	120,000	1,240	932
			화 학 비 료	4,023	13,971	5,156	4,597	6,138
			퇴 비	10,000	4,000	20,000	15,000	2,000
		재 비	농 약	5,000	4,000	500	4,500	956
			비닐하우스	30,000		7,000		
			諸 재 료 비	4,000	1,000	1,000	1,000	500
		비	농 기 구	3,500	3,500	2,500	1,500	1,800
			기 타	3,000	10,000	1,500	5,871	579
			계	95,523	46,971	157,656	33,708	18,305
	비	고 용 능 력 비		23,000	32,800	43,200	7,350	6,300
		경영비총계(A)		118,523	79,771	200,856	4,058	19,605
		농 가 노 력 비		57,100	63,200	73,200	16,350	14,100
		유 동 자 본 이 자		6,716	2,300	22,372	3,070	1,578
		고 정 자 본 이 자		4,250	1,281	4,250	1,002	1,970
		토 지 이 용 이 자		6,400	51,000	31,875	70,992	61,200
		계(B)		74,466	117,781	131,697	91,414	77,708
	생산비총계(A+B)			192,989	197,552	332,533	132,472	97,313
부 가 가 치			324,477	233,029	352,344	167,067	66,595	
순 수 익 율(%)			54	29	34	34	21	

資料 ; 實態調査 1976.4—78.2

비고 : ① 비용계산은 현지 시장가(구입시가)×수량

② 중간재비 기타는 농민의견에 의거 산출

③ 노동량 계산은 8시간 기준, 남여 차등

고, 인초는 농가 노력비(生産費 對比 32%), 논밭기는 총자대(生産費 對比 30.5%)로 나타났다. 그런데 미곡이나 맥류에 있어서는 공히 土地利用利자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經濟作物 栽培 農家に 있어서는 勞動力의 最大 活用 아니면 合理的 活用이었다는 것으로 分析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農家勞動力은 <表 3-2>에서와 같이 농번기(7월, 10월)를 제외하고는 遊休勞動 日數가 많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失業比率이 평균 35% 이상이나 되기 때문이다.

3. 經營費

租收益을 얻기 위해 經營活動에 投入한 相當 經營費는 <表 6>에서와 같이 스테비아가 118,523원, 인초가 79,771원, 논밭기가 200,856원으로서 全體 生産費 對比로 平均 50% 이상인데 비하여 미곡은 41,058원, 맥류는 19,605원으로 全體 生産費 對比 25% 이하이다.

이를 費目別로 보면 經濟作物이 種子費가 가장 比重이 컸고, 미곡과 맥류는 퇴비 및 화학비료비가 比重이 컸다.

4. 損益 計算(所得과 總收益)

經濟作物 栽培의 損益 計算은 農業所得說과 農業純收益說 두가지 기준⁵⁾에 의해서 검토함으로써 分析의 客觀性을 기하려 했다.

(1) 農業所得說에 의한 農業所得을 보면 스테비아 栽培에 의한 所得은 301,477원, 인초가 200,229원, 논밭기가 309,144원이고, 상대 주종작물인 통일벼가 159,717원, 대맥이 60,295원으로 나타났으며,

(2) 農業純收益을 보면 스테비아가 244,377원, 인초가 137,029원, 논밭기가 235,944원이고 통일벼가 143,367원, 대맥이 46,195원이었다.

韓國과 같은 小農의 家族農業에 있어서 純收益을 經營目標로 하는 것은 不合理한 現象⁶⁾이 생길 것으로 본다면 農業所得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農業所得에 있어서 經濟作物 栽培은 미맥 경작보다 거의 2배 이상이나 利益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經濟分析值의 論理的 判斷

조사 대상 農家作物의 經濟分析 結果值는 粗收入의 크기에 있어서 ① 논밭기, ② 스테비아, ③ 인초, ④ 통일벼, ⑤ 맥류 順이었고, 農業所得의 크기는 ① 논밭기, ② 스테비아, ③ 인초, ④ 통일벼, ⑤ 맥류 順이며, 農業資本 이윤율의 크기에 있어서는 ① 스테비아, ② 논밭기, ③ 인초, ④ 미곡, ⑤ 맥류 順으로 나타남으로서 經濟作物은 農業所得 作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食糧作物과 經濟作物로 연결된 作付體系 改善은 農家所得 増大를 위해서 보다 經濟的인 營農形態라 하겠다. 또한 農業生産 過程에 있어서 重要한 要素인 勞動力 利用 역시 經濟作物 栽培은 農家の 勞動力을 보다 合理的으로 配分 利用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5) 여기서는 農業經營의 目的과 目標의 기준으로서 ① 農業所得=農業租收益-農業經營費-自家勞動評價額+自地代 地代評價額+自己資本 利子評價額

② 農業純收益=農業租收入-(農業經營費+自家勞動)을 內容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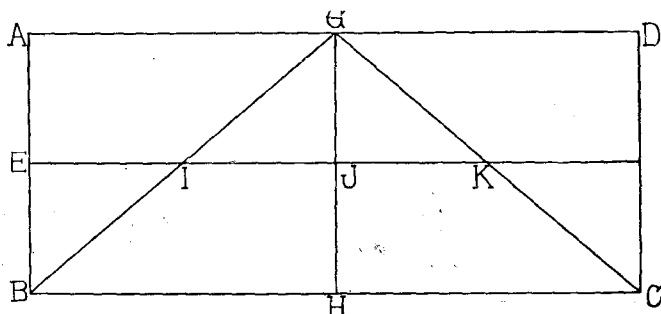
6) 自家勞動을 보다 적게 投下해야 純收益이 많게 되므로 自家勞動을 遊休시키는 結果를 가지게 되는 不合理한 현상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

經濟發展 過程에 있어서 不足한 資本을 커버하는 方法은 勞動에 의한 資本(資本財)의 創造 내지 形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農村의 過剩人口에도 불구하고 農村 勞動力 부족은 農業 生産力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大農(企業農)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年間 農業 勞動力 投入의 不均衡을 合理的으로 配分하여 勞動 Peak를 分散시킬 必要가 있는 것이다. 급경사로 묘사되는 勞動 Peak를 그대로 둔채 勞動力 부족을 機械로 대체한다 할때, 이제는 機械投入의 不均衡을 초래해 農家의 經濟的 浪費는 더 加重될 것이기 때문에 農業의 資本主義化를 위해서도 勞動力의 合理的 配分 利用은 필요한 것이다.

年間 勞動力 投入量의 平均化에 대한 說明⁷⁾ 하나를 附言해 봄으로서 그 必要性을 이해하고 現實性을 確認해 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에서 □ABCD 農家의 年間 總 保有 勞動量이고, △GBC는 農家의 실제 投下



勞動量인데 勞動 Peak time에는 GH의 勞動量이 投下된다. 그러므로 잉여 勞動量 △GAB와 △GCD는 潛在 失業이 된다. 만일 △GBC로 나타난 年間 投下 勞動量이 平均化되면 GH의 中점 EF線으로 均等化되어져서 農家의 年間 必要한 農業 勞動量은 □ABCD의 折半인 □EBCF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GIJ=△EBI이고, △GJK=△KCF이므로 △GBC는 □EBCF와 같으며 또 □ABCD=2×△GBC이기 때문이다.

잉여 노동력 內容이 △ABG와 △GCD라는 Peak type을 갖는 한 그 잉여 노동력을 農外 所得源에 投入할 수도 없고 만일 離農(out migration)이 된다면 農業 生産에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勞動力 代替없이 短時日 內에).

그러므로 勞動 Peak는 農業의 資本主義化까지 遲延 내지 拒否할 수 있는 要因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工業化는 勞動力 需要 增加로 나타날 터이니 勞動 Peak는 이제 農業生産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或者는 일련의 農業機械化論⁸⁾이나 協業化論⁹⁾, 農外所得論¹⁰⁾으로 農業 問題 해결에 接近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 經濟의 工業化 內容이 地方 分散化가 아닌 特殊 地域의 團地化로 事實上

7) ① 金文植 農業經濟學概論 1976. p.76

② Dong Hi Kim, George E. Rossmiller Broad Strategy for Development of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1972. p.12 (Figure—1 Diagram—)

③ 具在書, 新農業經濟學 1972, p. 101~103

8) 崔鍾軾, 構造改革에의 農政提言, 農業政策研究 第2輯, 韓國農業政策學會 1973. p.19

9) 俞仁浩, 協業制度下에서의 社會的 生産力. (具在書博士學甲論本集 1966, p.p.79~103)

10) 金聖吳 外 2人, 農業所得의 巨視的 決定理論, 農經研報告 1972. pp.30~4

金聖吳, 李容晚, 農業近代化의 手段으로서 協業農業活用方案調查研究, 農촌진흥청, 農業經營研究所 1969(油印)

農外 所得源은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協業은 農民들의 現實的인 作業 過程에서 微妙하고 복잡한 利害關係 때문에 이미 非現實的인 것으로 판명¹¹⁾되었던 것이며, 勞動 Peak를 그대로 둔채 機械化는 經濟的 浪費가 크기 때문에 長期的으로는 오히려 農業 自體를 위협할 것이다. 더구나 勞動力(농민기의 일손) 부족이 農業 機械化의 必要條件은 될지 몰라도 充分條件은 안된다. 왜냐하면 機械化에 있어서는 機械와 勞動力에 대한 限界代替率($\Delta L / \Delta M$)과 더불어 機械의 賃賃料가 勞賃水準 보다 낮아야 한다는 與件 造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農業機械化의 구체적 實現은 결국 農家所得 增大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經濟作物 栽培의 經濟的 意義가 높게 평가되어야 할 所以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作物別 生産彈性의 크기가 勞動, 土地, 資本의 順이라고 分析한 資料가 있다¹²⁾. 그러므로 經濟作物 栽培가 勞動力 不足을 加重시키기 때문에 生産 増加의 억제 요인이라고 反論을 제기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勞動의 限界生産力은 大部分의 農作物이 負值(-)를 나타냄으로써¹³⁾ 우리나라의 農業生産에서는 絕對勞動量의 過小 아닌 過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轉用으로 인한 勞動力의 分散 내지 減小는 増産에 負(-)의 效果를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민기에 일손 부족의 一面에서 勞動力 과잉이 아니라고 해도 확실히 農業勞動力은 不合理하게 投入된 것이다. 鑛工業 部門과 農水産 部門에서의 就業者 1人當 生産性을 對照해 볼 때 1977년 현재 農水産 部門의 그것은 鑛工業 部門의 그것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低水準¹⁴⁾에 처져 있다.

農業 部門의 1人當 生産性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農業人口의 과잉과 農水産 部門에 취업한 노동의 1人當 資本裝備率이 낮은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勞動生産性의 크기는 취업인구에 반비례하고 資本裝備率에 正(+)의 效果로 依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作付體系 改善을 內容으로 하는 經濟作物 栽培야말로 合理的 勞動利用과 耕地 利用率 提高는 물론 農業機械化를 可能케 하여 小農社會의 資本主義化가 否定되지 않고 資本主義의 農業 發展을 促進시키는 하나의 有用한 經濟行爲¹⁵⁾로 판단된다.

적어도 이점에 있어서는 같은 아시아 小農社會인 日本과 대만의 例가 하나의 示唆이면서 보충적인 例證이 될 것이다.

日本の 경우 農家所得 增大와 農業 機械化를 可能케 한것은 農外所得과 복합경영이었다고 分析하고 있다¹⁶⁾. 그것은 日本 小農들의 農外所得 彈力值가 正(+)이고 農業所得 彈力值가 負(-)라는 計測結果¹⁷⁾에서도 확인된다.

대만은 全勞動人口의 40%가 農業에 종사하고 있어 農家當 耕地面積이 1.02町步라는 점으로 볼 때 기후 조건만을 제외하고 우리와 비슷하지만 小農의 소형 경운기 所有는 98%, 耕地利用率은 23.3%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들 小農이 機械化되고 高所得(戶當 平均 150만 원 以上)을 달성한 이유로서 作付體系 改善에 의한 作目 多樣化로 說明하고 있다¹⁸⁾.

11) 協同心이 강하고 協業農이 잘 되었던 日本도 1970年代에 와서는 協業體는 全農家の 0.1%에도 未達된 數值로 그 増加 傾向은 이미 停滯되고 있다.

12) 金文植, 主要農作物의 生産要因別 増産效果 分析 1971, KIST研究 報告書

13) 金文植, 前揭書

14) 韓國銀行, 국민소득연보, 1975

농협중앙회, 농업연감, 1975

15) 金成勳, 小農發展의 規制要因에 관한 經濟的 評價, 農業經濟研究 1974.

16) Yoshiaki Ishizuka, 亞細亞에 있어서의 多毛作의 重要性, 作付體系改善 講習資料, 농촌진흥청, 1974.5 p. 167.

17) 金聖昊, 아시아 畝作社會에 있어서 小農問題의 再認識, 農業經濟研究 1972. p. 47

18) Yoshiaki Ishizuka, 上揭論文. pp. 183~7

V. 小農의 經濟行爲에 의한 理論의 定理—結言

一般的으로 小農은 그 零細性 때문에 營農의 商業化, 農業 機械化, 所得 增大 등 農業의 資本主義化가 不可能하다는 것이 傳統의 小農 理論의 共通된 理論이다. 그 理論의 一般的인 公準에 따르면 결국 工業化에 의한 農村人口의 吸收로 土地에 대한 人口의 壓力을 解消함으로써 農業生産性を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現存의 小農이 非現實의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며 解體의 當위성으로 理論은 定理되어 왔던 것이다¹⁹⁾.

여기에는 根本的으로 經濟學의 潮流가 小農經濟 問題를 關心 밖에 두었거나 그것에 대한 깊은 理解를 위한 接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이 非資本制的 經濟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았으며, 「마르크스」主義 經濟理論은 資本主義經濟의 諸法則에 관한 先入見 때문에 農業經濟의 現實問題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하였고 新古典派 및 一般均衡論者 등도 農業經濟理論의 接近法에 있어서는 「마르크스」主義와 비슷한 결론 밖에 끄집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說明이 보충된다.

물론 長期에 있어서는 工業化에 따른 雇傭機會의 擴大는 勞動의 限界生産力を 높여 줄 것이고 資本制的 企業農의 비중이 增大될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으로 傳統의 小農理論의 理論의 貧困性이 많이 露出되고 있기 때문에 의문되는 예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즉 現實의으로 離農人口를 工業化 過程에서 外生的인 經濟的 吸收要因에 의해서 展開되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해²⁰⁾ 버려야 할 것인가?

취급 일본, 대만, 한국에 있어서 小農들의 經濟作物 栽培에서 보여준²¹⁾ 營農의 商業化와 作目多樣化, 作付體系 改善을 통한 所得 增大 및 農業 機械化는 確實한 現實인데도 小農의 經濟行爲를 論理的으로 否定할 수 있겠는가?

過剩人口, 資源不足型 國家가 工業化 過程에서 資本制的 工業化는 그 限界性을 갖게 되리라는 疑問은 결코 現實性이 없을 것인가?

서구 先進資本主義에서 經濟的 善인 餘智를 無爲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²²⁾으로 보는 人口過剩國家에서도 똑 같이 限界生産力 만큼의 報酬를 支給한다는 基準에 따라 生産構造를 개편했을 때 그래도 經濟發展은 可能하게 될 것인가?

여기서 여태까지 論議해본 分析值들은 現實의으로 자본부족, 인구과잉의 小農社會에서 經濟發展을 위해 어떠한 示唆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經濟發展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資源을 總生産의 極大化를 위하여 利用할 수 있는 構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限界生産力이 支給되는 賃金보다 높은 勞動力만이 고용

19) 朴根昌, 韓國農業과 資本主義, (具在書博士華甲論文集 p.p. 2~45)

20) 朱奉圭, 農村人口 移動에 관한 變遷과 그 性格에 관한 研究, 農業經濟研究 1977, p.p. 80~7

21) ① Yamamoto, H., "On the Evolution of the Chinese Model of Agrarian Technology," The Developing Economics, Volume IX, No. 4, December 1971, Tokyo.

② 咸泳秀, 食糧増産을 위한 作付體系 改善 方案, 作付體系改善講習會, 資料 農村振興廳, p.p. 210~230 1974. 서울

③ 金聖昊, A Socio-Economic Analysis of Farm Mechanization in Asiatic Paddy-Farming Societ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and Japanese Cases 東南아시아地域의 農業機械化 세미나發表論文(油印本) 東京. 1971

④ 金東熙, 韓國의 小農問題, 小農綜合研修會報告,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4. p. 130

22) V.M. Dandekar, Economic Theory and Agrarian Reform, in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ed. by C. Eicher and L. Witt, McGraw Hill, 1964, p. 172

될 수 있는 資本制의 機構가 아니라 限界生産力이 0 이상인 모든 勞動資源을 利用할 수 있는 機構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分析한 結果로 確정한 바와 같이 經濟作物 栽培로 인한 作付體系 改善에서 所得 増大를 달성하는 小農의 經濟行爲는 결국 PigoA. A.C가 말하는 農業所得의 季節性이 效用減少를 초래한다²³⁾는 現實의인 우려를 解消시켜 준 것이며 經濟理論의 見地에서 보면 總生産 極大化를 위해 勞動力을 그 限界生産力이 0으로 되는 點까지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發展 過程에서 所望스런 經濟行爲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生産要素의 極大 利用을 통해서 總生産의 極大化(生産量増大+作物多樣化)를 얻게 될 小農의 經濟行爲²⁴⁾는 人口過剩國의 經濟發展 過程에 있어서 農家所得 増大 뿐만 아니라 非農業部門의 雇傭機會 不足으로 인해 遊休될 勞動力을 能率의으로 利用하는 經濟發展의 接近方案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資本主義 機構 안에 있는 이상 資本主義經濟의 運動法則에 따라 過剩人口가 非農業部門으로 吸收되어 資本制의 企業農이 成立 發展될 수 있는 段階에 가서는 결국 資本制의 企業農으로 變化²⁵⁾ 發展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小農들이 經濟行爲가 摩擦과 犠牲을 줄이면서 資源不足型, 人口過剩型, 開發途上國의 工業化와 農業의 資本主義化를 完成시켜 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긴 하지만 工業化에 의한 小農의 해체가 아니라 小農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論理가 定理될 수 있다.

「現實의인 것은 論理的」이라는 Hegel의 유명한 命題가 말해 주듯이 韓國의 小農들이 日常의으로 營爲하는 經濟行爲 속에는 그 自體가 生成 發展할 수 있는 論理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發展에 있어 先進國이 거쳐왔던 經路나 理論은 하나의 참고는 될지언정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理論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상황에서 小農經濟行爲의 經濟性은 매우 크다는 것과 더불어 傳統의 小農經濟理論에 대한 비판을 結論으로 提示한다.

23) A.C. Pigu, Industrial Fluctuations, Macmillan & Co., Ltd., 4th edition, 1927 p. 33

24) 그 行爲가 갖는 意味는 經濟作物栽培一作目 多樣化一作付體系 改善—所得 増大—機械化로 연결된 綜合의 營農을 내포함.

25) 鄭英一, 小農經濟理論의 새로운 展開, 經濟論集, Ⅷ, 서울대학교 韓國經濟研究所 1969. p. 106.